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6. 2.(화) 16:00

## “한반도 평화, 차세대 동포가 세계에 알린다” 재외동포청-민주평통, 평화교육 협력 강화

- ‘차세대 재외동포 평화교육 활성화’를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
- 모국초청연수 연계 체험형 평화교육 확대...거주국내 평화 공감대 확산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)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6월 2일(화) 오후 2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사무처장 방용승, 이하 민주평통)와 ‘차세대 재외동포 평화교육 활성화’를 위한 업무협약(MOU)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협약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, 이를 거주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양 기관은 재외동포청의 차세대동포 모국초청연수와 민주평통의 평화교육 전문성을 연계해, 차세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.
- 주요 협약 내용은 ▲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 연계 평화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, ▲ 차세대동포 대상 해외 지역회의 단위 평화교육 활동 지원, ▲양 기관 간 인적 교류 파견 검토 등이다.
- 특히, 기존의 일방향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토론과 체험, 현장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차세대동포들이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또한 거주국 주류사회와 활발히 소통하는 차세대 동포들의 특성을 살려, 국제사회 속 평화 공감대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협약식에서 “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을 심어주는 역사적 약속”이라며, “차세대동포들이 훗날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‘민간평화 외교관’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민주평통과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차세대동포들이 거주국 주류사회에서 글로벌 피스 리더(Global Peace Leader)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	책임자	과 장 김채영 (032-585-3213)
		담당자	서기관 이현준 (032-585-3217)
			주무관 이정화 (032-585-3219)

